

아동 발달권 보장 통한 잠재력 실현... ‘광주 온 돌봄’ 시동

[돌봄을 짊어진 아이들]

(중)초록우산 광주본부 첫 시범사업

‘가족돌봄 등 위기가동·청년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성장을 미뤄야 했던 아동과 청년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그릴 수 있도록 초록우산 광주본부가 통합 돌봄 시범 사업에 나선다.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4일 오후 광주 서구청 나눔홀에서 변정근 초록우산 광주본부장, 김이강 서구청장, 금호·시영·쌍촌종합사회복지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온(O·N)돌봄’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가족 돌봄 부담으로

서구·종합사회복지관들과 MOU

관련 법 시행 앞서 20명 대상 지원

연말까지 돌봄시간 ↓ 자립기반 마련

변정근 본부장 “제도화·전국 확산되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찾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과 ‘가족돌봄 등 위기가동·청년 지원법’ 제정에 앞서 서구는 조례를 근거로, 초록우산 광주본부는 자체적으로 위기가동·청년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법 제정에 따라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초록우산 광주본부와 서구는 이외 협약 참여 기관과 함께 조사·연구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상호 협력하며 돌봄의 폭을 확장하자는 뜻을 모았다.

광주 온(O·N)돌봄 사업은 ‘ON(켜다)’과 ‘온돌(따뜻함)’의 의미를 담은 지역 기반 통합돌봄 모델로, 정책화 이전 단계에서 효과를 검증하는 ‘파일럿 피시(Pilot Fish)’ 전략을 적용해 현장 중심 개입 요소를 발굴하고 돌봄시간 경감에 특화된 모델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다.

앞서 초록우산은 2021년 대구에서 발생한 20대 간병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족을 홀로 돌보는 아동·청소년에 주목했다.

당시 학업과 생계를 짊어진 이른바 ‘영 케어러(Young Carer)’들의 실태가 공론화되면서 그해 유사 사례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실태조사와 관련 법 제정 촉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사업은 관련 법 시행에 앞서 문제 의식을 환기하고 민·관이 협력해 지역 현장에서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첫 사례로 주목된다.

지원 대상은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고위험군 아동·청년 20명이며,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다.

초록우산은 이 기간 참여 아동 1인당 최대 100만원의 맞춤형 현금을 지원하고 통합 돌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개별 케어 플랜을 수립한다.

금호·쌍촌·시영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 수행을 맡으며, 서구는 민·관 협조 체계 구축과 행정 협력, 정책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사업을 수행하는 복지관들은 지역 특성과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정서, 의료, 생활 영역을 연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금호복지관은 조손가정과 장애인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요리활동, 진로 탐색 등 체험중심의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쌍촌복지관은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진로 상담과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직업·문화 체험을 통해 미래 설계를 돕는다.

시영복지관은 한부모·조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학업 연계와 가족 상담, ‘자키 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정체성 인식과 주도성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변정근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장은 “이 사업은 단순히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복지가 아닌 아이가 돌봄 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돌려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광주에서 출발한 이 모델이 제도화로 이어져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광주 남구 취약계층 아동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마련된 ‘2025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출범식이 15일 남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김병내 남구청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후원자, 유치원생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성학 기자

변압기 충돌 시각장애인 ‘차별구제 2심’도 승소

법원 “한전·목포시, 위자료 지급하라”

길을 걷다 변압기에 부딪혀 다친 시각장애인이 관리 주체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A씨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 2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전력공사와 목포시가 A씨에게 공동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13일 목포시 한 보도를 걷다가 변압기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 안면 열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한 폭을 확보하지 않은 보도에 변압기가 설치된 탓에 다쳤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변압기 설치 자체를 장애인 차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관리상의 하자로 A씨가 다친 것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목포시에 대해서도 사고가 난 보도에 ‘점형

블록’ 등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항소하지 않은 목포시와 달리 한전은 2심에서 A씨의 사고처럼 ‘이례적인’ 경우에 대비한 주의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고를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변압기의 크기가 보도의 너비와 비교해 상당히 보행자들의 통행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 어렵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조선대병원 “수술실 내일 재가동”

이틀째 수술 중단...20여건 취소

전기설비·의료기기 검사 등 조치

화재 여파로 이틀째 수술을 멈춘 조선대병원이 17일 재개를 목표로 안전 확보 등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수술 20여건을 전부 취소했다.

수술 예정자들이 미리 입원해 있었던 건 아니어서 전원 등의 조치는 없었다.

조선대병원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취소한 수술 일정을 환자들과 상의해 새롭게 잡을 계획이다.

병원 측은 수술 재개를 위해 화재 피해를 입은 3층과 이곳에 위치한 시설을 대상으로 뒤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각 수술실의 전기 공급 방법과 형태가 불이 난 7번 수술실과 유사한 만큼 합선·누전 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설비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한다.

검사 과정에서 수술실이 오염될 수도 있어 무균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과 의료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도 병행한다.

이 같은 조치를 마쳐야 수술실을 다시 운영할 수 있는데, 무균화 정도를 따져볼 수 있는 공기 질 검사 결과는 16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조선대병원은 17일 오전부터 7번을 제외한 나머지 수술실에서 순차적으로 수술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7번의 경우 화재 원인 조사가 끝난 후 복구 작업까지 거쳐야 해 재가동 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안재영 기자

광주서도 교사가 문제지 베껴 시험 출제...사전 유포도

목표의 한 고교 기간제 교사에 이어 광주에서는 정교사가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 문제지를 베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교사는 배간 문항을 시험 전 일부 학생들에게 알려줬다는 의혹도 제기돼 향후 파장이 우려된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초 실시한 광주 A고 기말고사의 1학년 수학 시험지 일부 문항에 대한 민원이 해당 학교와 시교육청에 제기됐다.

“22문항 중 12문항이 문제지를 그대로 베꼈다”, “해당 문항 중 일부가 시험 전 몇몇 학생들에게 공유됐다”는 이의제기가 접수돼 시교육청

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를 확인했다.

학교 측과 시교육청은 오는 17일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으며,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감사관에 통보하고 감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신성적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매우 심각한 일탈 행위”라며 “검사 결과 가나오면 정정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목표의 한 사립고에서도 기간제 교사가 출제한 기말고사 물리 과목 시험 24개 문항 중 6개 문항이 출판사 참고서와 동일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다미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리티 품질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소비자가격 ₩ 1,180,000



소비자가격 ₩ 1,380,000



소비자가격 ₩ 800,000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